

여수시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호응'



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난을 겪자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있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감면정책을 시작한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농기계 임대

는 372농가에 392건으로 지난해 대비 33.3% 증가했으며, 840여만 원의 임대료가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7월까지 4개월간 전체 임대료 감면액은 약 15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난 심화 농업인에 도움
지난해 비해 33.3% 증가...휴일 임대도 90% ↑

또한 여수시는 봄철 농번기를 맞이하여 적기 영농이 이뤄지도록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을 휴일에도 운영했다.

휴일 이용실적은 95회에 달했으며 임대료 50% 감면에 따른 이용률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90% 증가하는 등 농업인의 이용이 크게 늘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한 한 농업인은 "인력을 구할 수 없어 막

막한 상황에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어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임대료 감면과 휴일 임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농업인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고흥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 업무편람' 발간·배부

고흥군은 각 실과단소와 읍면 건설공사 발주업무 실무자의 업무 이해와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 업무편람"을 발간해 배부했다.

업무편람에는 확인평가 업무개요를 비롯하여 건설공사 청렴이행, 현장점검, 공사 공정별 이행안내, 분야별 주요 지적사례 등 각 사업의 추진과정과 단계별 세부내용을 사진, 도표 등으로 알기 쉽게 실무 중심으로 기술했다.

고흥군에서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특정감사로 5천만원 이상 공사 예비 준공검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결실시공을 점검하고 있으며, 해빙기, 우기, 폭염, 동절기 등에는 긴급점검과 아울러 취약구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본 편람이 건설 실무자의 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있고 투명한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전문감사 초빙과 교재내용 포함 직원 교육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는 고흥군 누리집



(<https://www.goheung.go.kr/>) 등을 통해 건설공사 부실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군 발주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불신 및 의혹 해소, 부패취약 요인 제거 등 부실 공사 사전 예방과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순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7월부터 모든 출산가정 서비스 이용료의 90% 지원

순천시는 2020년 하반기 출산장려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료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50%를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액을 7월부터 관내에 주소를 둔 산모라면 누구든지 소득에 관계없이 90%까지 확대

한다는데, 7월부터 건강관리사 이용료의 50%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서비스 비용에서 차감되며, 나머지 40%는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지원 확대 혜택은 7월 서비스

이용자부터 가능하며, 신청은 순천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출산장려팀(749-6689)로 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확대로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심 임신·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양경찰,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광양경찰서(서장 김현식)는 최근 이슈화된 디지털성범죄 사전 등 불법촬영·유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된 가운데 선제적 대처를 위하여 광양시청과 함께 광양시 지역 내 공중화장실 약 180곳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내용은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카메라 설치 흔적, 선정적인 낙서·남녀 공간미 분리 등의 불안요소 유무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광양경찰서는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운영하며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강력 대응 중이며, 피해자보호팀을 운영하여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런 활동과 더불어 이번 집중점검 중 발견된 범죄는 즉각적 수사와 피해자보호 지원

원까지 원스톱으로 적극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양경찰서는 7·8월 피서철을 '2차 불법카메라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유명 피서지(4대 계곡, 배알도 등)를 중심으로 불법 설치카메라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다양한 특수수색(버스미디어 및 QR코드) 활동을 통한 예방활동도 할 예정이다.

김현식 광양경찰서장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뿐 아니라 세심한 피해자 보호활동까지 일괄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체계 구축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텔레그램 성착취사건'으로 인한 시민들이 불안감을 덜기 위해 광양경찰서에서 먼저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함께하니 모내기도 척척"

보성군, 북내면 전직원 농번기 모내기 일손 돕기



보성군 북내면(면장 방명혁)은 지난 5일 영농기를 맞아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

이번 일손 돕기는 바쁜 영농시기에 허리디스크 수술로 모내기를 포기한 주민의 사연을 듣고 실시됐으며, 북내면 전 직원이 모판을 나르는 등 모내기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북내면장은 "직원 모두 농사일에 서툴지만 바쁜 농사철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이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농가가 있을 시 언제라도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주민 임씨는 "허리 수술로 올해 농사를 못 지을 뻔했는데 면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일손을 도와주셔서 이번 농사가 다른 때보다 더 잘 될 것 같다.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북내면 이장단도 개인 이앙기를 빌려 어려운 농가의 모내기를 돕기로 약속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지난 4일 여수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모습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우선협상 대상자 의료법인 삼호의료재단 선정

여수시는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을 새롭게 운영할 수탁운영자에 의료법인 삼호의료재단(대표장호직, 삼호병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해 도내 3곳의 의료법인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일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수행 및 책임능력, 병원 운영에 대한 의지, 특히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직원고용승계 부분에 선정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공신력,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고용승계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협상적격자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삼호의료재단과는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위·수탁 운영에 따른 협상 절차를 거쳐 협상이 최종 성립되면 6월 말 위·수탁 협약이 체결된다.

시는 위탁운영자가 최종 선정되면 기존 수탁기관과의 물품 및 인계인수, 고용승계 등 준비 과정을 거쳐 9월 초에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

